

2014년 2월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  
: 자기개념명료성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손 은 경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  
: 자기개념명료성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2014 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손 은 경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  
: 자기개념명료성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권 해 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3 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손 은 경

손은경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조교수 김택호 ㉠

위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정승아 ㉠

위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권해수 ㉠

2013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표 목 차 .....	I
ABSTRACT .....	II
I. 서 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가설 .....	5
II. 이론적 배경 .....	6
A. 사회불안 .....	6
B. 내현적자기애 .....	8
1. 자기애 .....	8
2. 외현적자기애와 내현적자기애 .....	9
3.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 .....	12
C. 자기개념 명료성 .....	13
1. 자기개념 명료성 .....	13
2. 내현적자기애와 자기개념 명료성 .....	14
3. 자기개념 명료성과 사회불안 .....	15
III. 연구 방법 .....	17
A. 연구 대상 .....	17
B. 측정 도구 .....	17
1.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	17

2. 내현적 자기에 척도 .....	17
3. 자기개념 명료성 척도 .....	18
C. 연구 절차 .....	18
D. 자료 분석 .....	19
IV. 연구 결과 .....	20
A.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 .....	20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20
2. 각 변인별 기술통계량 분석 .....	21
B.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	22
C. 내현적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 .....	23
D. 내현적자기애가 자기개념 명료성에 미치는 영향력 ...	24
E. 자기개념 명료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 .....	25
F.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 .....	26
V. 결론 및 논의 .....	28
A. 결과 요약 및 논의 .....	28
B.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	29
VI. 참고문헌 .....	32

## 표 목 차

<표 1>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 .....	11
<표 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	18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0
<표 4>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분석 .....	21
<표 5>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	22
<표 6>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	23
<표 7> 내현적 자기에가 자기개념명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	24
<표 8> 자기개념 명료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	25
<표 9>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료성의 매개효과 분석 .....	26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Son Eun Gyeong

Advisor : Prof. Kwon Hae-su Ph. D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tiy

This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on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 anxie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8 students (148 males, 160 females) who take cultural subjects in C,D,C university in Gwang-Ju. The measurement tools such as covert narcissism scale(CNS),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SIAS), and self-concept clarity(SCCS) were utilized. Collected research materials have analyzed by using SPSS 18.0.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vert narcissism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interaction. Second, covert narcissism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concept clarity. Third, self-concept clarity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interaction. Fourth, it proved significant that covert narcissism predicted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d that covert narcissism predicted self-concept clarity and that self-concept clarity also predicted social interaction anxiety. Lastly, the results made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ch was used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s of 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 showed that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on social interaction had the partial mediation effects on self-concept clarity.

Thus, the study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has indicated the importance of self-concept clarity to consult the college students who have social anxiety. This study also provides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 on psychopathology.

On the basis of the results, it was discussed about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며,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특히, 학창시절에 주어진 물리적 공간 안에서 한정적인 관계를 맺다가 대학교에 오면서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는 대학생에게 더 요구된다. 그럼에도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적 관계나 환경에 적응할 때 사회불안을 많이 경험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는 사회불안을 ‘낮선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 가지 이상의 사회적 혹은 수행상황에서 자신이 노출되고, 창피를 당하거나 당황하는 것이 보여질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 불안 증상이다.’고 정의하였다.

전국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신입생의 80.4%가 외로움, 불안, 우울/무기력, 분노, 자살충동의 부정적 정서를 최근 3개월 동안 한 개 이상은 경험하였고, 이 중 65.60%는 불안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금명자, 남향자, 2010). 금명자와 남향자(2010)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많은 대학생들이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사회불안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이 사회적 과업의 부담감으로 사회불안이 높아지게 되면, 쉽게 사회적 비판주의에 빠지게 되고(Spence, Donovan, Brechman, 1999), 대인관계 능력이 결여되며(La Graca & Lopez, 1998), 약물에 중독되거나 우울과 같은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Essau et al, 1999). 이렇듯 사회불안은 대학생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대학생 사회불안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대학생의 사회불안을 줄이기 위해 그 동안 선행 연구들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요인들로는 기질특성,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경험, 가정환경 등이 보고되었다(오경자, 양윤란, 2003). 특히,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기질특성

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불안을 느낄 때, 빈번하게 실패를 하면 더욱 심한 불안이 나타난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혹은 수행상황에서 실수로 인해 완벽하게 상황을 처리하지 못할 것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불안을 반복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사회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고 잘나 보이고 싶어하며, 이는 좋은 인상을 보이고자하는 자기애적 웅대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특히, 과도한 자기 웅대성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위축되어 있고, 소심하며, 수줍어하는 내현적 자기애 성격장애는 사회불안의 증상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Cooper, 2000). 즉, 사회불안을 줄이기 위해 평가민감성, 취약성을 주요특징으로 한 내현적 성격장애의 치료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질 특성인 내현적 자기애는 단일한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 치료 개입이 어렵고 변화하기가 힘들다. 윤성민, 신희천(2007)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것을 낮은 자존감에 의한 것으로 추론하기도 하였으나 자존감향상이 사회불안의 모든 치료 개입으로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성격장애의 사회불안을 용이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리적 현상을 유발하는 매개변수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정승아, 오경자, 2005).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 따르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웅대한 자기상을 주요 특징으로 자기에 대한 지나친 특권의식, 자기중심적 사고와 과민성, 자신을 독특하다고 믿고 타인에게 칭찬을 요구하는 특성 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은 전반적인 사회생활과 상호관계 속에서 부적응을 초래하게 만든다. 최근에는 자기애를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Kohut(1977)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를 구분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이러한 유형의 분류는 선행연구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Hendin & Cheek, 1997;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는 자기에 대한 웅대성이 강하며 남들에게 칭찬받으려는 욕구가 크며, 특별한 대우, 작취하려는 모습 등 외부로 자기애 특성이 드러난다. 이들은 비교적 우울, 열등감, 불안 등의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Hendin & Cheek, 1997).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는 자기애 특성인 거대한 자기 환상과 자기에 대한 웅대성이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억압되어 있다. 또한, 외현적 자기애와 다르게 자기상이 상처 입는 것에 매우 민감하여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다. 타인의 반응을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것은 이들을 위축되고, 수줍게 만들며 타인의 비판적인 내용에 예민하게 만든다(Akhtar & Thomson, 1982; Kohut, 1977).

이처럼 외현적 자기에보다 내현적 자기에가 좀 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를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내현적 자기에자들이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Dickinson & Pincus, 2003; Fraley & Shaver, 2000; Hendin & Cheek, 1997; Schurman, 2000; Smolewska & Dion, 2005; 권은미, 2009; 이인숙 2002; 한혜림, 2003). 또한 김미자(2009)는 외현적 자기에보다 내현적 자기에가 더 역기능적이어서 대인관계에서 적응이 어렵고, 우울이나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통해 내현적 자기에성 성격장애가 역기능적 정서를 더욱 많이 경험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설명한 선행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과 같은 정서적인 표상으로 자기를 지각하는 변인을 매개로 하거나(한혜림, 2004), 혹은 자의식, 자기비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같은 인지적인 요인을 매개로 하는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자기’의 내용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즉 ‘자기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와 같은 내용적인 측면에 맞추어 자신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변인들이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을 매개한다고 보았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과도한 예민성을 특징으로 하는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스스로가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에의 특성은 자기에 대한 확신의 부족(Wink, 1991), 불안정한 목표, 구체적이지 못함(Akhtar & Thompson, 1982) 등이 포함된다. 즉, 단순히 자기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가 하는 단일 요소에 의해서만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내현적 자기에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개념에 대해 불명확함을 가질 때 자아는 위협을 느끼게 되며, 외부의 정보나 단서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쉽게 느끼고(Campbell, 1990; Campbell et al,1996; Nezlek & Plesko, 2001),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생각하며 부정적 평가를 실제보다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일선, 2001). 또한,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사람은 사회적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불안을 호소하게 되고(Stopa, Brown, Luke & Hirsch, 2010), 갈등을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되었다(Nezlek & Plesko, 2001).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내현적 자기에성 성격장애자는 자기상을 일관되

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을 더욱 위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안정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내현적 자기애는 일관적이지 못한 자기개념과 외부 피드백으로부터 자신이 공격당한다고 여기고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에서 회피하는 형태의 모습인 사회불안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즉, 내현적자기애는 자기개념 명료성과 관련되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자기개념 명료성은 선행 연구에서 자기개념 명료성, 자기개념 명확성, 자아개념 명료성 등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명료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기개념 명료성은 '자기개념의 내용이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정의되며, 시간적으로 안정되며 일관된 정도'로 정의된다(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개인의 자기개념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자기도식의 내용의 정의가 아닌 스스로를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의내리며 자기개념이 얼마나 안전감 있고 내적으로 일관되는가를 보는지 자기도식의 구조적 개념이다. 자기개념 명료성은 자신의 태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혼란스럽게 느낄수록 자기개념 명료성은 약해진다(김은진, 2006).

선행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집단을 자기개념 명료성 수준에 따라 부정정서의 표출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길주현, 2008 김은진, 2006; 김혜경, 2009 등). 이준득(2007)은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개념 명료성이 외현적 자기애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다고 보고하였다. Campbell(1990)은 자기개념이 불명확할 때 자기와 관련된 외부의 자극에 대해 민감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을 때, 사회적 관계에서 피드백에 예민하고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들 보이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권은미, 2009).

그러므로 무엇이 내현적 자기애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불안을 경험하게 하는지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현적 자기애 내담자를 도울 때 어떠한 상담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자기개념 명료성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 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내현적자기애, 자기개념 명료성, 사회불안은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의 내현적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A. 사회불안

사회불안에 대해 임상적으로 ‘낯선 사람들이 지켜보는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혹은 수행 상황에서 자신이 노출 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불편을 느끼며 실수로 인해 창피를 당하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 내려진다 (APA, 1995). 보편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로 부터 평가되며 주의집중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감과 불안은 사회적 관계나 수행상황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이러한 불안감이 지나치게 느껴지고 계속적으로 사회적 또는 수행 상황을 걱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부정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불안은 낯선 상황을 회피하게 만들고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의 부적응으로 연결되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불안이 높게 되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opa & Clark, 1993). 사회불안이 심하게 되면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대인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위축되며 전반적인 생활영역에도 심리적 어려움과 부적응을 초래하는 한다. 특히, 대학생이 사회적 과업의 부담감으로 사회불안이 높아지게 되면, 쉽게 사회적 비판주의에 빠지게 되고(Spence, Donovan, Brechman, 1999), 대인관계 능력이 결여되며(La Graca & Lopez, 1998), 약물에 중독되거나 우울과 같은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Essau et al, 1999).

사회불안을 Kessler 등(1998)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어떠한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회불안을 세부적으로 분류기도 하는데 그 기준으로는 강도, 범위,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Herbert, Hope & Bellack, 1992; Leary, 1983). 특히, 유발 상황의 특징에 따른 분류로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Social interactive anxiety)과 수행불안(Performance anxiety)으로 분류한다(Holt, Heimberg, Hope & Liebowtez, 1992).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수줍음을 느끼고 상대에게 어떻게 행동하며 어떠한 말을 할지에 대한 두려움 등의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유형을 말한다. 수행불안은 발표와 같은 상황에서 타인이 자

신을 바라보고 있거나 보고 있는 상상만으로도 불안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관심과 평가에 대해 비난의 두려움과 관련된다(김향숙, 2001). 두 유형의 불안 모두 사회불안의 특징을 포함한 개념이지만 김민선, 서영석(2009)은 사회불안을 대인관계 상황에서 느끼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상황에서 느끼는 수행불안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타인의 피드백이나 행동에 최소한의 영향을 받는 수행불안(kessler et al, 1998)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관점으로 사회불안을 이해하였다.

사회불안이 있을 때 사람들은 생리적, 행동적, 인지적 요인의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생리적 요인은 손이나 몸에서 땀이 나거나 떠는 증상, 얼굴 빨개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행동적 요인에 말을 더듬거나 초점을 잃은 시선 처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요인에 자기 비관주의, 부정적 사고, 평가에 대한 염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김중우, 1999).

또한, 몇 가지 증상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외에도 사회불안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자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밝히려는 노력이 선행되었다. 오경자(2003) 등은 그 요인으로 기질적인 특성,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경험, 가정환경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중 자기에성 성격장애의 기질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불안을 느낄 때, 빈번하게 실패를 하면 더욱 심한 불안이 나타난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혹은 수행상황에서 실수로 인해 완벽하게 상황을 처리하지 못할 것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불안을 반복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특히, 과도한 자기 웅대성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위축되어 있고, 소심하며, 수줍어하는 내현적 자기에성 성격장애는 사회불안의 증상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Cooper, 2000). 윤성민, 신희천(2007)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것을 낮은 자존감에 의한 것으로 추론하기도 하였으나 자존감향상이 사회불안의 모든 치료 개입으로 보기는 힘들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질특성 외에도 인지적 모델을 강조하는 선행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지 이론은 사회 불안이 발생하게 된 원인, 그 증상이 유지되는 이유, 치료적 개입에서 인지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에 보고된 사회불안에 대한 대표적 인지 모델은 자기초점 및 안전행동(Clark & Wells, 1995)이 있고, Beck(1966) 등의 역기능적 신념에 의한 인지 모델이 있다. 또한, 자기표상과 타인의 표상의 비교에 대한 인지적 모델(Rapee & Heimberg, 1997) 등이 있다.

인지적 모델에서 사회불안은 잘못된 인지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지적

요인을 매개로 하여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미정, 2002). 따라서 사회불안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기 위해서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인지적 요인의 수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B. 내현적 자기에

### 1. 자기에

자기애(Narcissism)란 용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나르시스(Narcissus)라는 소년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소년은 연못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에 반하여 어떤 사람도 아닌 스스로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죽음이라는 비극에 이르게 된다. 자기애는 나르시스의 신화처럼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고 자기에게 도취된 특성을 의미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는 나르시스 신화를 빗대어 설명되었고, 나르시스 신화를 빗대어 자기애를 설명하고자 하였고, 최초로 심리학 문헌으로 자기애라는 용어를 설명하였다(Akhtar & Thomson, 1982). 이후 자기애를 인간의 중요한 심리적 개념으로 사용한 학자는 Freud이다. Freud는 'On Narcissism' 저서를 통해 자기애를 간의 성격발달과 정신역동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소개하였다. Freud 외에도 정신역동의 개념으로 자기애를 이해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학자로는 Kernberg, Kohut가 있다.

Freud(1957)는 자기애를 자기를 향한 심리적 에너지의 몰입으로 바라보았다. 즉, 자신에 대한 정서 혹은 리비도가 자신을 향하면서 스스로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태도로 정의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는 자신을 다른 대상과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갖는다. 이 시기의 아이는 자신의 신체적인 욕구를 울음으로 표현하게 되고 부모는 우는 아이의 만족을 채워주면서 아이는 자신을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일차적 자기애(primary narcissism)'를 느낀다. 이후 아이는 외부세계를 자신과 구분하게 되고 외부에 관심이 생기면서 '대상애(object-love)'를 느낀다. 이때 외부 상황 혹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면서 '이차적 자기애(secondary narcissism)'가 생긴다. 그러나 리비도가 외부로 옮겨가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속 어린아이처럼 리비도가 자신에게만 머물러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나타난다. Freud는 자기애의 특성을 자기과대 또는 자기사랑 등의 자기에 대한 태도, 자존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두려움 및 취약성, 과



대망상 같은 방어적 지향성, 사랑받고 싶은 욕구, 과시적인 태도 등이 있다고 하였다.

Kernberg(1975)는 자기애자들이 내면적으로는 병리적이고 부적절한 것을 인정하기 보다는 자기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가지고 겉으로 매우 적응적이고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애성 성격은 성장환경에서 비일관된 양육태도, 부모의 거부, 좌절 등의 부모의 양육과 관련되어 형성된다고 하였다. 부모로부터 거부되고 이해받지 못한 경험이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게 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부정적 감정을 양육자에게 투사하고 자신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웅대한 자기상이 형성하게 된다. Kernberg는 자기애의 특성을 스스로에게 과도한 몰입, 야망, 열등감, 칭찬에 대한 과도한 의존, 공감능력 결여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만성적으로 타인에 대한 질투심을 느끼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평가절하하고 자신을 과장하는 ‘자기애적 철수(narcissistic withdrawal)’를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Kohut(1977)는 Kernberg의 ‘자기애’ 개념과 대조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자기애를 정상적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발달단계에서 양육자에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는 병리적인 현상으로 자기애가 형성 될 수 있지만 성숙한 형태로 변형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자기애는 활력이 넘치며 에너지가 있고 자존감을 위해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숙한 형태로 변형되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봄을 받지 못할 때 병리적인 자기애가 나타난다. 병리적인 자기애는 타인에게 과도한 관심과 집중을 받기를 원하며 자기애적 욕구를 채워주기를 요구한다. 자기애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자존감에 상처를 받게 될 경우 반사적으로 웅대성이 커지면서 냉담해지거나 무시하는 말투 등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Kohut(1977)는 병리적인 자기애의 특성을 과장된 자기존중, 과도한 칭찬 강요, 공허감, 자기 가치를 타인의 관심과 온정에 의존하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자기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DSM-III(1980)에서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를 포함시켰다. 이후, 자기애의 특성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과도한 지각,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과도한 찬사를 요구, 특별하게 대우받으려는 욕구, 야망, 거만함 등으로 DSM-IV(1994)에 묘사되었다.

## 2.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임상가들은 DSM-IV(1994)에 제시된 자기애는 병리적인 웅대성, 거만함, 자기의 중요성 강조, 특권의식, 타인에 대한 착취성 등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는 Kernberg(1975)

의 자기에 개념이 반영되어 외현적이고 겉으로 표현되는 자기에의 특성으로 대부분 못 되었다. 외현적으로 표현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자기에의 특성을 외현적인 것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자기에 척도들 간의 상관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었다(Emmons, 1987; Wink 1991; Wink & Gough, 1990). 이후 자기에와 유사한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지니지만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의 유사한 자기에가 있다는 것에 주목되었다. 자기에의 한 집단은 자신의 웅대함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지만, 다른 집단은 웅대함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소심하고 불안함, 열등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Wink & Gough, 1990). 이와 같은 현상적 관찰을 통해 자기에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표현 양식에 따라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로 구분되었다(Akhtar & Thompson, 1982; Cooper & Ronningstam, 1992; Wink, 1991b).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는 공통적으로 자기에의 고유 특성인 거대 자기환상, 특권의식, 웅대성을 가지고 있다. 외현적 자기에는 거대자기 유형으로 외현적으로 자기 고양의 특성을 보이고 타인을 평가절하 하는 등 자기에 특성을 외부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외현적 자기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우울, 열등감 등의 정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Hendin & Cheek, 1997). 반면에 내현적 자기에는 웅대성을 가지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자기 환상이나 잘난척 하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자기에적인 역동이 내면적으로 자리 잡혀있고 소심해보이기도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는 자기 웅대성이 드러나기도 한다(김미자, 2009). 또한, 외현적 자기에는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해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웅대성을 과시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직접 요구하지만 내현적 자기에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예민하기 때문에 확언을 피하면서 회피적으로 자기개념을 보호한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의 자기개념을 보호하는 방식은 자기 고양의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게 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느끼게 한다. 또한, 더 역기능적이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갖는다(Wink, 1991b).

강선희, 정남운(2002)는 내현적 자기에가 다섯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첫째, ‘목표불안정’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정체성에 불확실성을 보인다. 둘째,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은 타인에게 칭찬 받기 위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야망을 갖는다. 셋째, ‘착취/자기중심성’은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갖고 타인을 착취하려 하며 자신에게 특권의식을 갖는다. 넷째, ‘과민/취약성’은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과 타인의 평가에 예민한 모습, 지나친 민감성을 갖고 열등감을 보인다. 다섯째, ‘소심/자신감 부족’은 자신감이 부족하며 내향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Akhtar와 Thompson(1982)은 kohut(1977)이 제시한 이론을 종합하고 임상적 관찰을 고려하여 두 자기에 유형의 특성을 여섯 가지 기능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1.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

	외현적	내현적
자기개념	웅대성, 뛰어난 성취에 대한 환상, 자신이 특별하다는 과장된 생각, 특권의식, 허울뿐인 자부심	열등감, 침울한 자기의식, 수줍음, 취약함, 칭찬과 힘에 대한 처절한 탐색, 비판과 현실적 좌절에 대한 민감함
대인관계	다수와 사귀지만 피상적인 관계, 타인으로부터 찬사를 받으려는 강렬한 욕구, 타인에 대한 멸시, 공감의 부족, 집단 활동에 진심으로 참여하지 않음	진정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타인을 믿지 못함, 보편적인 경계에 대한 고려 부족
사회적 적응	사회적으로 매력적, 때로 성공적, 경탄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열심히 일함, 강한 야심, 외관에 몰두	목표없음, 피상적인 직업적 헌신, 수박 겉핥기식의 태도, 다양하지만 피상적인 관심
윤리, 규범, 이상	전형적 겸손, 실생활에서 돈에 대한 거짓된 경멸, 독특하고 균형에 맞지 않는 도덕관념, 걸은론 사회 정치적 사건에 열성적	호의를 얻기 위해 쉽게 가치를 바꿈, 병리적으로 거짓말, 물질적인 생활양식, 태만한 경향, 무질서한 윤리적, 도덕적 상대주의, 권위에 대한 불손함
사랑과 성	결혼불안정, 문란한 성생활, 성적 자제력 부족, 배우자 외의 관계	연애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부족, 연인을 자신과 분리된 개인으로 보지 못함, 성적 일탈, 때때로 성도착
인지양식	인상적으로 지식이 많아 보임, 단호하고 고집이 셈, 언어를 좋아함, 자기중심적 현실지각, 손쉽게 지식을 획득하길 좋아함	지식이 흔히 사소한 것에 국한된, 상세한 것을 기억하지 못함,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 부족, 자신감이 위협될 때 현실의 의미를 왜곡하는 경향, 자존감 조절을 위해 언어를 사용

출처 : Akhtar & Thomson, 1982

### 3.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

임상적으로 내현적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특성은 사회불안의 특성과 유사한 공통성을 보인다.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고 대인관계에서 회피하거나 철수하는 모습을 나타낸다(정남운, 2001). 또한, 타인에게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에 예민하고 자신이 지나친 관심을 받지 않고 창피당하지 않으려 하고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 매우 노력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이러한 특성은 사회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유사하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는 지지되고 있다. Sherman(2000)은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불안이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고, 국내에서도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이 정적상관 있다고 보고하였다(이인숙, 2002; 한혜림, 2003; 권은미, 2009; 윤성민, 2007; 박영주, 2013).

특히, 김나예(2012)는 외현적 자기애가 자기주장성이나 리더쉽 등의 긍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은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에서 민감하고 취약하며 소심하기 때문에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정남운(2001a)은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미리 걱정하고 그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늘 과민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Akhtar와 Thomson(1982)은 내현적 자기애 집단이 비판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기대 수준의 자기애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스스로에게 실망이 커지고, 만성적인 과민성은 그들의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회피 혹은 철수가 만드는 것이다(Cooper, 1998; Gabbard, 1989, 1998; Kraus & Reynolds, 2001; Wink, 1991). 즉,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타인의 반응을 과도하게 살피고, 수줍음이 많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 실수로 인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사회불안을 호소하는 내담자의 치료적 개입을 위해 내현적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직접적으로 다루기에는 내현적 자기애가 기질적 특성이기 때문에 치료적 한계가 있다.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사회불안을 용이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리적 현상을 유발하는 매개변수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정승아, 오경자, 2005).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설명한 선행 연구에서는 수치심 경향성과 같은 정서적인 표상으로 자기를 지각하는 변인을 매개로 하거나(한혜림, 2004), 혹은 자의식, 자기비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같은 인지적인 요인을 매개로 하는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들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자기’의 내용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즉 ‘자기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와 같은 내용적인 측면에 맞추어 자신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변인들이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을 매개한다고 보았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과도한 예민성을 특징으로 하는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스스로가 어떻게 평가하는 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에의 특성은 자기에 대한 확신의 부족(Wink, 1991), 불안정한 목표, 구체적이지 못함(Akhtar & Thompson, 1982) 등이 포함된다. 즉, 단순히 자기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가 하는 단일 요소에 의해서만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C. 자기개념 명료성

### 1. 자기개념 명료성

자기개념(self-concept)은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고 역동적이며 조직화된 지식구조로 자기에 대한 믿음, 평가, 기억을 포함하는 지식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Greenwald & Pratkanis, 1984; Kihlstrom et al., 1988; Campbell et al., 1996), Rogers(1959)는 ‘자신을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는지 생각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자기개념은 인간이 삶 속에서 자신의 태도와 신념을 지속적으로 형성해가는 것으로(최정문, 2013)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신에 대한 심리적 요소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초기에 사용된 자기개념의 의미는 자기에 대한 평가적인 의미, 단일화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이론가들은 자기를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초기의 내용적인 부분 외에도 구조적인 부분도 설명하였고(Altrocchi, 1999), 이와 같은 주장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지지되고 있다(Liville, 1985, 1987; Markus & Nuiou, 1986). 자기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은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자기의 평가를 의미하는 포괄적 의미로 가치, 목표, 신체적 특성 또는 자기존중감, 자기도식, 자기 심상 등이 포함된다. 반면 자기개념의 구조적 측면은 자기의 지식 및 정보들을 조직화하여 저장하는 것으로 자기개념 복잡성, 자기개념 명료성 등이 있는데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구조적

요소는 ‘자기개념 명료성’(Self-concept clarity)이다.

자기개념 명료성은 선행 연구에서 자기개념 명료성, 자기개념 명확성, 자아개념 명료성 등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명료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기개념 명료성은 ‘자기개념의 내용이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정의되며, 시간적으로 안정되며 일관된 정도’로 정의된다(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개인의 자기개념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자기도식의 내용의 정의가 아닌 스스로를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의내리며 자기개념이 얼마나 안전감 있고 내적으로 일관되는가를 보는지 자기도식의 구조적 개념이다. 즉, 자기에 대한 내용이나 신념이 얼마나 시간적으로 일관되게 확신하는가를 뜻하는 것으로(Campbell, 1990; Campbell & Lavalley, 1993) 자신의 태도를 얼마나 믿는가를 나타낸다.

최근에는 자기개념의 구조적 측면이 중요시 되면서 구조적 변인이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되는 경향을 보인다(정현희, 2012). 삶의 부적응을 유발하는 신경증적인 요인인 분노, 불안 등은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적상관을 보였고,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자기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등에는 정적으로 상관을 보였다(문경하, 2007; 이기재, 최해림, 2009; 정현희, 2012; Campbell et al., 1996).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자기개념 명료성이 사회적 관계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 2. 내현적 자기에와 자기개념 명료성

자기개념 명료성은 인간이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한 요소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Bigler, Neimeyer, & Brown, 2001). 특히, 자기에와 자기개념 명료성의 상관관계는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지지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내현적 자기에와 자기개념 명료성의 관계가 흥미하게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 이준득(2007)은 외현적 자기에 집단과 통제집단은 자기개념 명료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현적 자기에가 높은 집단에서 자기개념 명료성과의 높은 상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수현(2005), 최정문(2013)의 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에와 자기개념 명료성의 관계가 유의미하다는 결과들이 선행되고 있다. 또한, 자기개념 명료성 모델을 자기에성 성격에 적용한 Stucke과 Sporer(2002)의 연구에서 자기관이 부정적이지만 명료한 사람이 자기관이 긍정적이지만 모호한 사람보다 외부의 위협을 덜 지각한다고 보고되었다.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차이는 외현적 자기애자들에 비해 내현적 자기애자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과민하고(박세란, 2005), 내현적 자기애자는 자기상을 일관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을 더욱 위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즉,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외부의 피드백이나 자극에 민감하고 거대한 자기상의 방어와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타인에게 받는 부정적 평가를 과도하게 걱정하면서 피하거나 철수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최정문, 2013). 또한, 강선영(2012)의 연구에서도 자기개념이 명료하지 않으면 자기에 대한 불안정한 취약성을 갖고 있는 내현적 자기애는 외부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자의 자기개념이 시간적으로 안정되고 일관되며 자신의 신념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질 때, 스스로의 자기상을 일관되게 인식하기 때문에 외부의 피드백을 위협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낮게 된다.

### 3. 자기개념 명료성과 사회불안

자기개념 간의 통합성이 자기개념 명료성 모델에서 심리적인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Campbell, 19996). 특히, 자기개념 명료성은 신경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응적 정서인 분노, 불안 등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자존감, 주관적 안녕관 등의 적응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정서와는 높은 정작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문경하, 2007; 이기재, 최해림, 2009; 정현희, 2012; Campbell et al., 1996).

선행 연구를 통해 자기개념이 명확하고 일관될 때,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고, 자신의 정서상태를 균형적으로 유지하여 전반적인 대인관계 및 삶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혀졌다(Bigler, Neimeyer & Brown, 2001; Campbell et al, 1996). 특히, 부정적 정서 중 많은 대학생들이 호소하는 사회적 불안의 증상이 낮은 자기개념 명료성과 유의미하게 상관이 높게 나타났고(Stopa, Brown, Luke & Hirsch, 2010), 이외에도 자기개념 명료성과 불안, 우울의 상관이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Beck, Syeer, Epsteion, & Brown, 1990; Brady & Kendall, 1992).

특히, 최정문(2013)은 자기애의 고유 특성인 자기에 대한 거대한 자기상을 가지면서 자기개념이 모호한 개인이 부적 정서로 인해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자기개념 명료성 모델을 자기애자들에 적용한 Stucke과 Sporer(2002)의 연구에서도 자기애자들이 긍정적인 자기관을 가져도 일관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면 외부의

피드백로 부터 위협을 크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위협을 크게 지각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자신이 공격당한다고 느끼고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회피하거나 철수하는 형태인 사회불안의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내현적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개념에 대해 불명확함을 가질 때 자아는 위협을 느끼게 되며, 외부의 정보나 단서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쉽게 느끼고 (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Nezelek & Plesko, 2001),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생각하며 부정적 평가를 실제보다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일선, 2001). 또한,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은 사람은 사회적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불안을 호소하게 되고(Stopa, Brown, Luke & Hirsch, 2010), 갈등상황을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되었다(Nezelek & Plesko, 2001).



### Ⅲ. 연구 방법

#### A.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3년 10월 광주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33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에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B. 측정도구

##### 1.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 SIAS)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Matticks 와 Clarke(1998)이 개발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에서 대인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겪는 불안(interaction anxiety)의 정도를 측정하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의 내용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할 때 나타나는 반응을 기술하는 자기 진술문 형식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김향숙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91으로 나타났다.

##### 2. 내현적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가 Ahktar와 Thomp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개발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 Covert Narcissism Scale(CNS)란 이름을 사용하여 개발한 척도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하위척도를 도출하였는데,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과 내현적 자기애만의 고유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공통요인은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성(9문항), 착취/자기중심성(9문항), 고요유인은 목표불안정(9문항), 과민/

취약성(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으로 명명하였다. 강선희(2002)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alpha$ 는 .90으로, 각 하위 척도들의 Cronbach's  $\alpha$ 는 .81, .74, .89, .80, .7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alpha$ 는 .86이었으며, 각 하위요인들의 Cronbach's  $\alpha$ 는 .71, .81, .65, .51, .61이었다.

표 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2, 6, 7, 13, 17, 24, 33, 38, 43	9문항	.71
착취/자기중심성	4, 9, 11, 12, 16, 22, 27, 35, 45	9문항	.81
목표불안정	5, 15, 20*, 23, 29, 30, 37*, 42, 44	9문항	.65
과민/취약성	3, 8, 10, 14, 19, 25, 26, 31, 36, 40	10문항	.52
소심/자신감 부족	1, 18, 21, 28, 32, 34*, 39, 41	8문항	.61
전체		45문항	.86

\*은 역채점 문항

### 3. 자기개념 명료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 SCCS)

자기개념 명료성을 측정하기 위해 Campbell 등(1996)이 개발한 자기 개념 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를 사용하였다. 12문항의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진 척도로, 자기개념이 어느 정도 명확한지를 측정하는 척도이고 문항은 5단계 Likert척도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신하는 정도가 높고 자기 지식들 간의 내적 일관성, 그리고 자기 지식의 시간적 안정성을 보인다. 즉, 자기개념 명료성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Campbell(1996)등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81으로 나타났다.

### C.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3년 9월에서 10월 두 달 간 광주 전남소재의 C, C, D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내현적 자기에 척도, 자기개념 명

료성 척도,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 인적사항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 작성에는 총 15분 가량 소요되었다. 총 33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한 308부를 최종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 D.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여 내적합치도를 알아보았다.

둘째,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개념 명료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분석 절차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여섯째,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인 간 모델별 Sobel test(절대값>1.96이면 유의함)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A.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08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1. 성별	남 자	148	48.1	
	여 자	160	51.9	
2. 연령	19~20세	158	51.3	21.71 (2.30)
	21~22세	57	18.5	
	23세 이상	93	30.2	
3. 학년	1학년	161	52.3	1.96 (1.19)
	2학년	62	20.1	
	3학년	22	7.1	
	4학년	63	20.5	

성별은 남자 148명(48.1%), 여자 160명(51.9%)이었고, 연령은 19세~20세까지가 158명(51.3%), 21세~22세가 57명(18.5%), 23세 이상이 93명(30.2%)이었다. 학년은 1학년 161명(52.3%), 2학년 62명(20.1%), 3학년 22명(7.1%), 4학년 63명(20.5%)이었다.

## 2. 각 변인별 기술통계량 분석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인 내현적 자기애(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착취/자기중심성,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부족), 자기개념명료성, 사회불안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분석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소값	최대값
내현적 자기애	전 체	128.12	16.71	-.03	.40	79.00	185.00
	인정욕구/ 거대자기환상	29.81	4.60	-.27	.78	13.00	43.00
	착취/자기중심성	20.82	5.42	.27	.00	9.00	37.00
	목표불안정	25.42	4.75	.16	-.49	15.00	40.00
	과민/취약성	29.67	4.50	-.04	-.44	18.00	42.00
	소심 /자신감부족	22.46	4.20	-.04	.48	9.00	36.00
자기개념명료성		36.72	6.58	.28	.43	19.00	58.00
사회불안		50.09	11.44	.02	.17	19.00	86.00

연구대상자 308명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의 평균은 128.12, 표준편차는 16.71이었다. 자기개념명료성의 평균은 36.72, 표준편차 6.58이고 사회불안은 평균 50.09, 표준편차 11.44이었다. 왜도와 첨도의 기준은 절대값이 2미만의 왜도와 절대값이 4미만의 첨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가 가장 높은 값은 .28, 첨도는 -.49로 측정치들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 B.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사용된 내현적 자기에 전체와 하위요인, 자기개념 명료성,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계수로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변인	1	1-1	1-2	1-3	1-4	1-5	2	3
1. 내현적 자기에	1							
1-1.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59**	1						
1-2. 착취/자기중심성	.72**	.32**	1					
1-3. 목표불안정	.74**	.21**	.414**	1				
1-4. 과민/취약성	.80**	.38**	.433**	.53**	1			
1-5. 소심/자신감부족	.72**	.21**	.33**	.52**	.56**	1		
2. 자기개념명료성	-.64**	-.31**	-.40**	-.57**	-.52**	-.51**	1	
3.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56**	.13*	.33**	.39**	.52**	.66**	-.48**	1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에, 자기개념 명료성,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주요 변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와 자기개념 명료성( $r = -.64$ ,  $p < .001$ )이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과 자기개념 명료성과의 상관에서도 모두 부적상관을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개념 명료성과 목표불안정( $r = -.57$ ,  $p < .01$ ), 과민/취약성( $r = -.52$ ,  $p < .01$ ), 소심/자신감부족( $r = -.51$ ,  $p < .01$ ), 착취/자기중심성( $r = -.40$ ,  $p < .01$ ),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r = -.31$ ,  $p < .01$ ) 순으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은( $r = .56$ ,  $p < .01$ )으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과 사회불안의 상

관관계는 소심/자신감부족( $r=.66, p<.01$ )이 정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왔고, 과민/취약성( $r=.52, p<.001$ ), 목표불안정( $r=.39, p<.001$ ), 착취/자기중심성( $r=.33, p<.01$ ),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r=.13, p<.05$ )순으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념 명료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r=-.48, p<.01$ )에서도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 C.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하위요인인 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표 6.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308)

예측변인	중속변수	$\beta$	t	$R^2$	F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25	-2.22*		
착취/자기중심성		.21	2.06*		
목표불안정	사회불안	-.08	-.64	.47	56.41***
과민/취약성		.59	4.13***		
소심/자신감부족		1.46	10.20***		
내현적 자기애 전체		.38	11.806	.31	139.39***

\* $p<.05$ , \*\*\* $p<.001$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 전체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38, p<.001$ ), 그 설명력은 31%( $F=139.39, p<.001$ )이었다.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은 소심/자신감부족( $\beta=1.46, p<.001$ ), 과민/취약성( $\beta=.59, p<.001$ ),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beta=-.25, p<.05$ ), 착취/자기중심성( $\beta=.21, p<.05$ )이 사회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 하위요인들의 전체 설명변량은 47%( $F=56.41, p<.001$ )이었다.

#### D.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개념 명료성에 미치는 영향력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하위요인인 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개념명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308)

예측변인	종속변수	$\beta$	t	$R^2$	F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15	-2.21*		
착취/자기중심성		-.12	-1.90		
목표불안정	자기개념	-.44	-5.80***	.44	47.37***
과민/취약성	명료성	-.23	-2.71**		
소심/자신감부족		-.32	-3.73***		
내현적 자기애 전체		-.25	-14.72***	.42	216.75***

\* $p < .05$ , \*\* $p < .01$ , \*\*\* $p < .001$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 전체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25, p < .001$ ), 그 설명력은 42%( $F = 216.75, p < .001$ )이었다.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은 목표불안정( $\beta = -.44, p < .001$ ), 소심/자신감부족( $\beta = -.32, p < .001$ ), 과민/취약성( $\beta = -2.71, p < .01$ ),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 $\beta = -.15, p < .01$ )이 사회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 하위요인들의 전체 설명변량은 44%( $F = 47.37, p < .001$ )이었다.



### E. 자기개념 명료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

자기개념 명료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개념 명료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자기개념 명료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308)

예측변인	종속변수	$\beta$	t	$R^2$	F
자기개념 명료성	사회불안	-.83	-9.46	.23	89.47

\*\*\* $p < .001$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개념 명료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83$ ,  $p < .001$ ), 그 설명력은 23%( $F = 89.47$ ,  $p < .001$ )이었다.

## F.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

내현적자기애 총점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 절차는 표 8과 같다.

표 9.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명료성의 매개효과 분석

단계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beta$	t	R <sup>2</sup>	F
1	내현적자기애	자기개념명료성	-.25	.02	-.64	-14.72 <sup>***</sup>	.42	216.75 <sup>***</sup>
2	내현적자기애	사회불안	.38	.03	.56	.24 <sup>***</sup>	.31	139.39 <sup>***</sup>
3	내현적자기애	사회불안	.30	.04	.43	7.09 <sup>***</sup>	.34	77.07 <sup>***</sup>
	자기개념명료성		-.34	.11	-.20	-3.23 <sup>***</sup>		

\*\* $p < .01$ , \*\*\* $p < .001$

분석 결과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는 매개변인인 자기개념명료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beta = -.64, p < .001$ ), 본 연구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서( $\beta = .56, p < .001$ )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 조건도 충족시켰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료성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분석에서는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43, p < .001$ ), 자기개념명료성도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beta = -.20, p < .001$ ).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계( $\beta = .56, p < .001$ )에서보다 세 번째 단계( $\beta = .43, p < .001$ )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네 번째 조건 또한 충족시켰다. 즉 내현적 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값이  $\beta = .56$ 이었으나,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명료성의 값이  $\beta = .43$ 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를 독립변인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

여 분석했을 때 31%이었으며,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명료성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했을 때는 설명량이 34%로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자기개념명료성은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검증 결과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Sobel, 1982).

본 연구에서의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베타 계수의 감소가 유의미함을 나타냈고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이 부분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Z=8.02, p<.01$ ).

## V. 결론 및 논의

### A.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로 인한 사회불안에 효율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자기개념 명료성의 설명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광주시 소재의 대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은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 사이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이 매개변인 역할을 할 것이란 것이다.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SPSS 18.0을 사용해 변인간 상관을 살펴보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Schurman, 2000; 이인숙, 2002; 한혜림, 2003; 황안나, 2011; 박영주, 2013). 두 변인의 관계를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요인인 소심/자신감부족, 과민취약성, 목표불안정 순으로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외현적 자기애와의 공통요인인 인정욕구/거대자기, 착취/자기중심성이 고유요인에 비해 낮은 상관을 보인 것을 보아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이 사회적 불편감을 더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대인관계에서 많은 불안과 어려움을 보인다고 선행 연구에서 지지되었다(Dickinson & Pincus, 2003; Fraley & Shaver, 2000; Hendin & Cheek, 1997; Schurman, 2000; Smolewska & Dion, 2005; 권은미, 2009; 이인숙 2002; 한혜림, 2003). 이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자기의 기대수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자기애로 인해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만성적인 과민성이 그들의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회피나 철수를 만들기 때문에 (Cooper, 1998; Gabbard, 1989, 1998; Kraus & Reynolds, 2001; Wink, 1991) 사회불안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료성은 다소 높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이준득 (2007)은 내현적 자기애가 낮은 자기개념 명료성이 나타난다는 결과와 강일선(2005)의 연구에서 지지되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외부의 피드백이나 자극에 민감하고 거대한 자기상의 방어와 취약한 자기개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타인에게 받는 부정적 평가를 과도하게 걱정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고(최정문, 2013) 잘못된 정보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져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자기개념 명료성과 사회불안도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는데 Stopa, Brown, Luke & Hirsch(2010)의 연구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을 때 사회불안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를 통해 본 연구를 뒷받침해준다. Campbell(1990)은 자기개념이 불명확함을 가질 때 자아가 위협을 느끼면, 외부의 정보나 단서를 부정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연구되었다(Campbell, 1990; Campbell et al,1996; Nezlek & Plesko, 2001). 이는 부정적 정서를 반복하여 생각하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 상황이나 평가를 회피하는 사회불안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즉,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료성, 자기개념 명료성과 사회불안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개념 명료성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지지되는 결과이며(Dickinson & Pincus, 2003; Fraley & Shaver, 2000; 윤성민, 2007; 황안나, 2011; 박영주, 2013;),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이 매개 역할로서 중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나타내더라도 명확한 자기개념 명료성이 있다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석된다.

## B.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개념 명료성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자의식, 자기비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내용적 측면이자 취약적인 매개변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기개념이 얼마나 안전감 있고 내적으로 일관되는가?’의 의미인 자기도식의 구조적 측면이자 적응적인 매개변인으로 밝힘으로써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확장시켰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사회불안에 대한 이해와 상담개입을 확장시켰는데 의의를 둔다.

둘째, 사회불안을 호소하는 대학생 중 강한 인정욕구, 과민함, 취약성, 소심한, 자신감 부족 등의 내현적 자기애 특징을 가지는 내담자에게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내현적 자기애는 기질적 성향으로 상담을 위한 시간이 다소 많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변화도 쉽지 않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을 나타낼 때 내현적 자기애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보다 자기개념을 명료화함으로써 내담자의 사회불안의 원인과 해결책을 탐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내현적 자기애 특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대학생에게 자기개념 명료성을 형성하기 위한 상담전략을 세우므로 대학생의 사회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자기개념 명료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명확한 집단 정체성을 갖도록 돕기 위해(Usborne & Taylor, 2010) 자기이해 집단상담을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신입생 때부터 오리엔테이션 및 신입생 세미나 수업을 통해 전공에 대한 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치를 부과한 목표 달성을 실패하지 않도록 돕는 것을 통해(Ayduk, Gyurak, & Luerssen, 2009) 사회불안으로 고통 받는 내담자를 위한 치료 개입방법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9세부터 30세 미만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광주시 소재의 대학생으로 제한되었기에 집단 표본을 청소년, 30세 이후 성인 집단 등 전체 집단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연령의 분포가 20대 초반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연령대를 골고루 분포하여 표집한 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임상 집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연구의 사회불안, 내현적 자기애와 같은 병리적인 개념을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임상집단을 통한 연구를 통해 어떠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모두 자기보고형 설문지가 사용되었기에 연구 대상자들의 응답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자기보고식 응답은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왜곡이 가능하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인정받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긍정적으로 응답 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조사 이외에 행동관찰, 실험연구 등의 보다 객관성 있는 측정 방법을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를 보이는 사회불안 집단을 대상으로 명확한 자기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임상적으로 불안이 경감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를 밝혀냈

지만 세 변인의 관계를 동일한 시점에 측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매개효과를 밝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내현적 자기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사회불안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즉, 종단 연구를 통해 두 변인 사이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연구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자기개념 명료성을 매개로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설명하였지만 그 외에 매개 변인이 작용할 수 있기에 다른 중요한 요인을 추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박영주(2013)는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의 매개변인을 취약 요인으로 밝혔지만 적응적인 요인으로 매개변인을 찾을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존 연구에서 시사된 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 요인으로서 매개변인을 통해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을 밝혔지만 그 외에도 적응적인 매개변인을 추가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의 구조적 측면의 변인으로 자기개념 명료성 외에도 다른 변인들이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내현적 자기에, 자기개념 명료성, 사회불안의 관계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문화로 타인의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보다 자기에 대해 시간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인지하는 것만을 심리적 개입으로 다루기에는 집단 문화에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 기성세대에 비해 개인주의 문화가 많이 흡수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집단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내현적 자기에의 사회불안을 다루기 위해 자기개념 명료성과 다른 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인 모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VI. 참고문헌

- 금명자, 남향자 (2010). 전국 대학신입생의 대학생활 기대 및 정신건강. **인간이해**, 31(1), 105-127.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적 성격장애: 지나친 자기 사랑의 함정. 학지사.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일선 (2005). 자기애와 자기개념의 명확성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2009).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27-642.
- 길주현 (2008). 자기애의 세부특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911-924.
- 김나예 (2012).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애가 부정적 평가두려움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자 (2009). 내담자의 자기대상 욕구와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관계.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민선, 서영석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235-545.
- 김은진 (2006). 자기개념 명확성과 성격특성에 따른 분노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종우 (1999). 사회공포증의 인지적, 생리적, 행동적 요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경 (2009). 청소년의 자기애 성향 및 자기개념 명확성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경하 (2007). 자기개념명확성과 자의식이 주관적 안녕감 및 평가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주 (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제



- 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57-576.
- 윤성민, 신희천 (2007).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67-982.
- 이기재, 최해림 (2009). 분리-개별화, 자기개념 명확성 및 비합리적 신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30(2), 81-99.
- 이인숙 (2002).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불안 및 방어성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 216.
- 정미정 (2002). 자의식, 자기개념,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39-53.
- 정승아, 오경자 (2005). 자기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자의식의 매개효과와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4(4), 887-901.
- 정현희 (2012). **상담자의 완벽성향과 주관적 안녕감,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림 (2003). **자기애가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 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안나 (2011).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ltrocchi, J.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pluralism in self-structure. In J. Rowan & M. Cooper (Eds.), *The plural self: Multiplicity in everyday life* (pp. 168-182). London: Sage.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3th ed.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4th ed.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ck, J. (1966). Effect of orientation and of shape similarity on perceptual grouping. *Perception & Psychophysics*, 1(9), 300-302.
- Bigler, M., Neimeyer, G. J., & Brwon, E. (2001). The divided self revisited: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differenti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3), 396-414.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83-549.
- Campbell, J. D., & Lavalley, L. F. (1993).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 rewards. In R. F. Baumeister(Ed.). *Who am I? : The role of self-concept confusion in understanding the behavior of people with low self-esteem*. New York; Plenum.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L. M., Lavalle. L. F., & Lehman. D. R. (1996).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Social Phobia. Do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 Copper, A. M., & Ronningstam, E. (1992).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Tasman, A., & M. B. Riba(Eds.).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1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Cooper, A. (1998).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E. Ronningstam(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53-7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Cooper, A. M. (2000).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ngstam(Eds.), *Disorders of*

-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53–74, London: Jason Aronson Inc.
- Dickinson, K. A., & Pincus, A.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3), 188–207.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11–17
- Essau, C, Conradt, J., & Peterman, F. (1999). Frequency and co-morbidity of social phobia and social fears in adolescen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7, 831–843.
- Fraley, R. C., & Shaver, P. R. (2000).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etical developments, emerging controversies, and unanswered ques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2), 132–154.
- Gabbard, G. O. (1989). Two subtype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3(6), 527–532.
- Greenwald, A. G., & Pratkanis, A. R. (1984). The self. In R. S. Wyer & T. K. 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3, pp. 129–178). Hillsdale, NJ: Erlbaum.
- Herbert, J. D., Hope, D. A., & Bellack, A. S. (1992). Validity of the distinction between generalized social phobia and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2), 332–339.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588–599.
- Holt, C. S., Heimberg, R. G., Hope, D. A. (1992). Situational Domains of Social Phobi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6(1), 63–77.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essler, R. C., Stein, M. B., & Berglund, P. (1998). Social phobia subtype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5*, 63–69.
- Kihlstrom, J. F., Cantor, N., Albright, S. J., Chew, B. R., Klein, S. B., & Niedenthal, P. M. (1988).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study of the self,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1, pp. 145–178).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raus G. & Reynolds D. J. (2001). The "AB-C's" of the Cluster B's: identifying, understanding, and treating Cluster B personality Disor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3), 345–373.
- La Greca, A. M., &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2), 83–94.
- Leary, M. R., & Kowalski, R. M. (1995). *Social anxiety*. New York: Guilford press.
- Liville, P. W. (1985). Self-complexity and affective extremity; Don't put all of your eggs in one cognitive basket. *Social cognition*, *3*(1), 94–120.
- Markus, H., & Nurius,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9), 954–969.
- Nezlek, J. B., Feist, G. J., Wilson, F. C., & Plesko, R. M. (2001). Day-to-day variability in empathy as a function of daily events and m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5*(4), 401–423.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8), 741–756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1–19
- Schurman, C. L. (2000). *Social phobia and covert narciss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right Institute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 Soble,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pence, S. H., Donovan, C., & Brechman, T. M.(1999). Social skills, social outcomes and cognitive features of childhood social phob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2), 211-221.
- Smolewska, K., & Dion, K. (2005). Narcissism and adult attachment: A multivariate approach. *Self and Identity, 4*(1), 59-68.
- Stopa, L., & Clark, D. M.(1993). Cognitive precesses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33), 255-267.
- Stopa, L., Brown, M. A., Luke, M. A., & Hirsch, C. R. (2010). Constructing a self: The role of self-structure and self-certainty in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1*(1), 1-11.
- Stuck, T. S., & Sporer,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as predictor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4), 590-532.
- Watson, D., & Friend, R.(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4), 224-257.
- Wink, P. (1991b).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597.

## 부 록

부록 1.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Social Interactive Anxiety Scale : SIAS)

부록 II. 내현적 자기에 척도

(Cover Narcissism Scale : CNS)

부록 3. 자기개념 명료성 척도

(Self-Concept Clarity Scale : SCCS)

부록 4. 인적사항

부록 1.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1. 다음 문항들은 사회적 관계 에서 느낄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시고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찾아 하나의 해당번호 위에 V표를 하시면 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면 긴장된다.	1	2	3	4	5
2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1	2	3	4	5
3	나 자신이나 내 감정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면 긴장된다.	1	2	3	4	5
4	동료들과 편안하게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다.	1	2	3	4	5
5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된다.	1	2	3	4	5
6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다.	1	2	3	4	5
7	다른 사람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긴장된다.	1	2	3	4	5
8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편안하다.	1	2	3	4	5
9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10	이야깃거리를 쉽게 생각해낸다.	1	2	3	4	5
11	이상하게 보일까봐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걱정된다.	1	2	3	4	5
12	다른 사람의 주장에 반대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3	매력적인 이성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14	사회적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곤 한다.	1	2	3	4	5
15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 불편하다.	1	2	3	4	5
16	대화 도중 부적절한 말을 할 것 같다.	1	2	3	4	5
17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할 때 무시당할까봐 걱정하곤 한다.	1	2	3	4	5
18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때 긴장한다.	1	2	3	4	5
19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할지 망설인다.	1	2	3	4	5

부록 2. 내현적 자기에 척도

2. 다음 문항들은 대인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찾아 하나의 해당번호 위에 V표를 하시면 됩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3	비판받았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1	2	3	4	5
4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1	2	3	4	5
5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1	2	3	4	5
6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처럼 그려 보고 싶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가끔 남의 비평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1	2	3	4	5
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올 때에 때때로 짜증이 난다.	1	2	3	4	5
10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11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12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해도 괴롭고 귀찮다.	1	2	3	4	5
13	나는 내가 잘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1	2	3	4	5
14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15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1	2	3	4	5
16	속기보다 차라리 남을 속이는 것이 좋다.	1	2	3	4	5
17	나는 내게 부족한 것(예를 들면, 외모나 돈, 혹은 능력과 같은 것)	1	2	3	4	5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난다.					
1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1	2	3	4	5
20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1	2	3	4	5
21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1	2	3	4	5
23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나기를 바란다.	1	2	3	4	5
25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1	2	3	4	5
26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27	필요하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28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1	2	3	4	5
29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1	2	3	4	5
30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31	나는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편이다.	1	2	3	4	5
3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1	2	3	4	5
33	나는 사람들이 왜 나의 장점을 좀 더 알아주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34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도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1	2	3	4	5
35	나는 나에게 득이 될 때만 '공평의 원칙'을 지킨다.	1	2	3	4	5
3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종종 매우 외롭고 불편하다.	1	2	3	4	5

37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1	2	3	4	5
3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39	나는 혼자서도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40	요 며칠 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1	2	3	4	5
41	누군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아주 힘이 든다.	1	2	3	4	5
42	나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43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1	2	3	4	5
44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1	2	3	4	5
45	기회만 된다면, 나는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것이다.	1	2	3	4	5

부록 3. 자기개념 명료성 척도

3. 다음 문항들은 자신의 성향에 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찾아 하나의 해당번호 위에 V표를 하시면 됩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들은 종종 서로 상충(맞지 않고 어긋남)할 때가 있다.	1	2	3	4	5
2	나는 어떤 날에는 내 자신에 대해 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날에는 그와 다른 의견을 갖게 된다.	1	2	3	4	5
3	나는 내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4	어쩌다 한 번씩 나는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과 실제의 나는 다르다고 느낀다.	1	2	3	4	5
5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는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6	나는 네 성격의 서로 다른 특성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좀처럼 경험하지 않는다.	1	2	3	4	5
7	나는 때때로 내가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안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8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들은 자주 변한다.	1	2	3	4	5
9	만일 나에게 내 성격을 설명하라고 하면 내 설명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할이지 모른다.	1	2	3	4	5
10	비록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1	2	3	4	5
11	전반적으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12	나는 자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가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다.	1	2	3	4	5

▣ 다음의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V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_\_\_\_\_세

3.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